

조선시대 저고리의 구성원리에 관한 고찰

—深衣 구성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정 해 경 · 권 영 속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the Jegory in the Chosen Dynasty Period

—Focus on Relationship Simii and Jegory—

Hae-keung Jung · Young-suk Kw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1987. 11. 12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Jegory with Simii, and to understand the construction of Jegory, assuming that Jegory is related to Simii system.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Tçie-ku-li was the first record among the name of Jegory in literature, was called about A.D. 1408.
2. When Jegory and Simii were cut, front-back width and sleeve length standardized on the width of cloth.
3. The cutting of Jegory disposed to separate right and left width, to connect front and back width up to the middle term of Chosen Dynasty Period.
4. The sewing order of the Simii was Dungsol-Jindong-Baerae-Sougu. The sewing order of the Jegory in 「The Book of Chosen sewing」 was Shoulder-Jindong-Baerae-Sup-Dungsol-Kit and in literature of 1960's it was similar to Simii.
5. The lined clothes in 「The Book of Chosen Sewing」 was sewn to put the inside in the surface, different from the literature of 1960's.
6. In Chosen Dynasty Period the shape of Simii depended on 「Moon Kong Ka Rye」, but it was changed to similar to Jegory in the latter term.
7. The empty void in Jegory offers usefulness. It relates to Oriental negativism that yin is more useful than yang.

I. 서 론

오늘날 복식에 대한 연구는 점차 영역을 확대시켜

나아가 외형적인 형태에 대한 문제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 즉 본질을 찾고자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복식연구의 시야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전통복식에 대한 연구는 역사속에 묻혀

있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주변복식과의 관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민족의 역사속에서 형성되어온 복식을 통하여 그속에 포현된 민족적 의미를 밝히는 것 역시 복식의 본질을 찾고자하는 우리의 연구과제라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복식에 있어서 그 구성법의 원리를 규정하고, 나아가 그 원리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를 이해하여 그 복식을 착용한 인간과 더불어 내재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저고리의 의미는 下衣에 대한 上衣이며, 시대적 범위는 조선시대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고대이래로 저고리 구성의 변화과정이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며 조선시대가 저고리 구성의 결정체가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고리 구성에 대한 문헌의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 2차적인 자료로, 조선시대 儒服이며 通禮服이었고 저고리와 같은 편면구성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深衣의 衣 구성과 비교하여 보았다. 즉 深衣는 上衣와 下裳이 분리되어 구성된 후 허리에서 연결된 것이므로 연결되기 전의 상태는 한복의 저고리 치마 분리형태와 다를바가 없으므로 深衣의 衣와 저고리는 유사한 구성체계를 갖춘 의복이며, 杉本正年¹⁾도 역시 深衣의 구성에 제일 가까운 재단법이 행하여지고 있는 의복이 조선복이라고 하여 이 두 복식의 구성적 관련성은 깊다고 본다.

II. 저고리와 深衣 구성의 관련성

저고리라는 말이 문헌상에 최초로 나타나는 기록은 세종 2년(1420년)의 赤古里²⁾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明 永樂年間(永樂 6년 1408년경)에 성립된 「朝鮮館譯語」에는 저고리에 대하여 “襖 哲谷立 我”로 기록되어 있다. 이 「朝鮮館譯語」에는 第一段에는 漢語를, 第二段에는 漢語에 상당하는 국어를 漢字로 音譯한 것을, 第三段에는 第一段의 漢語의 朝鮮漢字音式發音을 각각 당시의 中國字音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姜信沆은 哲谷立의 추정음을 tɕie-ku-li, tɕjə-구-리라고 밝히고 있다³⁾. 이로보아 조선초기에 이미 저고리의 발음은 「閑中錄」⁴⁾에 기록된 ‘저구리’와 유사한 음으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며, 발음상으로 보면 赤古리의 음이 哲谷立의 음보다 前시대의 것으로 추측되므로 赤古里는 세종실록의 기록보다 더 앞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襖는 「四禮便覽」⁵⁾과 「六禮修略」⁶⁾에서 赤古里를 지칭하는 용어로 계속 사용되었다.

그 외에 저고리의 용어는 短赤古里, 袂隔音, 娟莫伊衫兒, 唐赤古里, 唐古衣, 唐衣, 胡袖, 串衣⁷⁾등으로 다양한데 이는 그만큼 저고리의 형태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음을 말해준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다양성속에서도 기본적인 구성원리는 한 패턴에서 출발되었다는 전제아래 본 연구에서 지칭하는 저고리는 포괄적인 의미의 上衣임을 밝혀둔다.

深衣의 기원은 周이전 부터로 추측되며,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은 고려시대로 본다.⁸⁾ 그후 조선시대에는 通禮服으로 사용되면서 儒學子들 간에 深衣制度에 대한 기록 및 변론이 많았다.

조선시대의 深衣制는 久菴遺稿, 喪禮備要, 家禮附贅, 疑禮問解, 星湖僿說, 礪溪隨錄, 靑莊館全書, 예의류집속편, 家禮增解, 林園十六志, 常變通攷, 五洲衍文長箋散稿, 四禮便覽, 四禮纂說, 士儀, 士儀節要, 閩閩叢書, 四禮轉要, 家禮彙通, 喪禮要解, 安陵世典등에 기록되어 있다. 深衣와 우리복식과의 관계는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의하면 深衣와 유사한 형태로 帖囊과 襪衫을 들 수 있으며 鶴髦衣의 검은 襪은 皂綠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같은 의복에서 단이 아니라 상당한 구성체계를 갖춘 深衣가 중국의 복제로서 우리한복과 영원히 분리된 이중구조로서만 존재한 것이 아니며, 전통적인 한복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구성법을 비교하여 연역적으로 저고리 구성원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III. 저고리와 深衣의 구성법

III-1. 마름질법

마름질은 구성의 첫단계로 간주되어지며 의복구성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 「三·一神話 治化紀」⁹⁾에 匪西岬神母에게 길쌈을 맡기며 이르는 내용중 “웃은 추위와 더위를 막으며 귀하고 천함을 표시하는 것이니 여공으로 하여금 베고(剪) 호아서(縫) 백성에게 베풀라”하여 의복구성의 단계를 베는 단계와 호는 단계 즉 마름질과 바느질로 구분하고 있다.

조선시대에서는 마름질하는 날을 택하는 것부터 중히 여겼으며 「閩閩叢書」¹⁰⁾에 의하면 “지의 길일 옷드르느 길훈 날이라…… 우 길일…… 꺼씨리는 날은……”이라 하여 옷 마르기 좋은 날과 꺼리는 날을 자연에 이치에 순응하도록 하였다. 이것이 물론 그대로 시행되었는지는 의문이 있지만 마름질의 의복구성의 근본이 되는 단계로 여겨 그만큼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衣와 刀가 합하여진 합성어 初는 하나의 有

에서 또다른 有를 만드는 창조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마름질 행위는 모든 것의 시초가 된다. 따라서 마름질은 단순히 뻐다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승격된 의미를 지닌 행위로 간주되어 졌다.

그리고 마름질에서 원형이나 부분 본의 사용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閑中錄」¹¹⁾에 의하면 “너인이 견마기를 벗겨 척수를 쉰려 쉰거닐”, “옷 척수하여 가더니”라 하였으니 의복의 치수를 그대로 재어 마름질하였던 듯하며, 이와같은 방법은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

마름질에 사용되는 尺度로 深衣는 文公家禮에 指尺을 사용한다 하였으며, 司馬溫公은 周尺을 사용한다 하였다¹²⁾. 指尺은 가운데 손가락의 중간마디를 1寸으로 삼은 것으로, 각 사람에 따라 다르나 대개 2 cm로 보면 1尺은 약 20 cm 정도이다.

조선시대에 사용된 尺 가운데 周尺은 세종 12년에 20.81 cm에서 숙종때 20.59 cm, 한말에 20.48 cm, 광무 6년에 20.00 cm로 변했으며, 布帛尺은 44.75 cm에서 세종말엔 46.73 cm로 영조때 긴 것은 51.41 cm, 짧은 것은 49.08 cm로, 광무 6년에 51.51 cm로, 일제때 긴 것은 56.43 cm 짧은 것은 51.27 cm로 변했다¹³⁾.

이尺외에 저고리 마름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布의 幅으로서, 布幅은 길의 품과 소매길이의 기준이 된다. 布幅에 대하여 「星湖僿說」¹⁴⁾에 문무왕에는 布幅이 2尺으로 중국제도와 같았으나 당시의 布帛은 1尺 4~5寸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尺을 周尺으로 본다면 약 28.8~30.9 cm가 된다. 이것은 박홍수¹⁵⁾가 세종때의 布物幅을 7寸으로서, 布帛尺 길이를 46.73 cm로 보면 布幅은 32.7 cm이며 한벌은 布帛尺 37尺이 소용된 것 같다고 추정 한 것과 비슷한 수치이나 실제로 조선시대에 사용된 직물의 폭은 다양하였다.

1. 저고리의 마름질법

조선시대 저고리 마름질은 문헌과 유물의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나 조선시대 저고리 유물에 대한 연구는 형태 변화와 치수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구성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조선초기 저고리에 대한 연구로서 장인우¹⁶⁾에 의하면 사용된 布幅은 길의 품과 소매길이의 기준이 되었으며, 뒷중심 연결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솔을 약 0.2 cm 접어 박아 布幅에 따라 길의 좌우가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중기 저고리에 대한 장인우¹⁷⁾의 연구에서는 어깨솔이 없이 길의 전후가 연결되었으며 어깨솔은 조선후기에 나타난다.

저고리 마름질에 대한 문헌으로 1925년의 「조선재봉전서」¹⁸⁾에는 저고리의 치수가 그 당시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전제로 보아 조선후기의 저고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이미 布幅이 넓어지고 저고리가 短小化됨에 따라 길의 좌우가 한쪽에 배치되기도 하나, 생고사복으로 여자어른의 박이결 저고리 마름는 법에서는 좌우의 길이 한쪽의 布에 배치되나 좌우가 나뉘어져 있어 좌우 분리형이 원칙이었음을 암시해 준다(Fig. 1). 또한 한쪽에 전후좌우의 길이 함께 연결된 마름질법에는 布幅을 기준으로 길과 소매를 배치하며 설도 布幅에 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Fig. 2).

따라서 저고리 마름질은 길과 소매를 布幅을 기준으로 하여 기준으로 하여 배치하였으며, 길의 좌우가 분리되고 전후가 연결되어 어깨솔이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후 1960년대의 문헌^{19~22)}과 오늘날에도 마름질법은 布幅에 따라 다양하나, 전후좌우의 길을 연결한 형과 좌우로 분리시킨 형이 있다.

2. 深衣의 衣 마름질법

深衣의 마름질법은 文公家禮의 深衣制度 補注²³⁾에 “포2폭을 사용하여 길이는 4자 4치이며 이것을 가운데를 접어 2자 2치로 하며……, 소매 역시 포2폭을 사용하여 길이는 4자 4치이다. 이것을 자기 가운데를 접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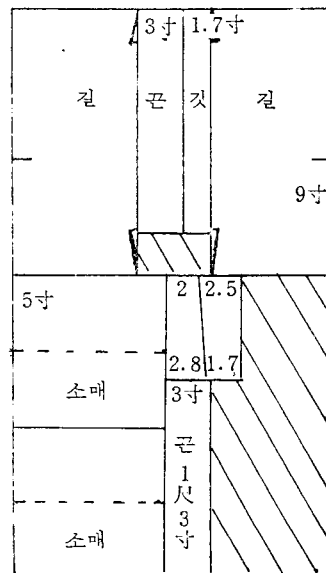


Fig. 1. 생사고폭으로 여자 어른의 박이결저고리 마름는 법(조선재봉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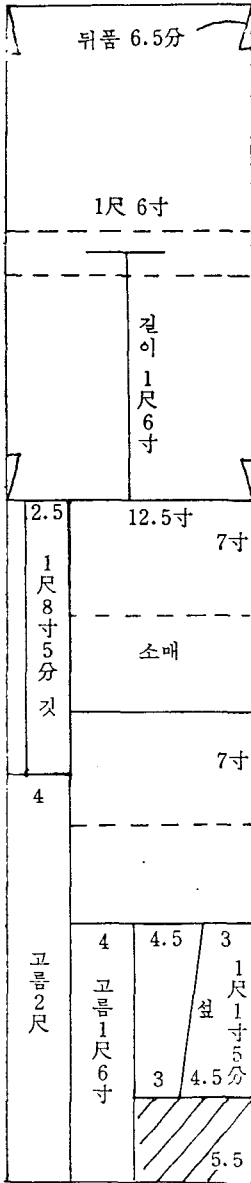


Fig. 2. 법단폭으로 남자 어른의 솜저고리 만드는 법 (조선재봉전서)

2자 2치로 하며……, 방령(方領) 양깃(襟)은 겨드랑이 아래에서 서로 쉼(袷)을 여미면 양깃(領)이 합쳐서 저절로 네모(方)가 된다”고 하였다.

즉 深衣의 衣 마름질은 길(衣身)이 2폭, 소매가 2폭으로 모두 4폭이며, 길이 좌우는 분리되고 진후는 연결되어 어깨솔이 없는 것이 조선중기 저고리 유물의 마름질과 동일하다. 본 深衣의 衣 마름질은 Fig. 3과 같으며 사용된 布의 분량은 指尺으로 2尺 2寸의 폭에 길이 17尺 6寸으로서 약 352 cm가 된다.

그러나 고종 7년에 간행된 「土儀」²⁴⁾에는 深衣의 마름질이 변형되어, 衣身은 폭이 2尺 2寸에서 尺 2寸으로 줄었으며 반면 소매는 衣身の 폭이 좁아짐에 따라 화장을 보충하기 위해 半幅이 덧붙여져 있으며 袷은 布1幅을 비스듬히 잘라 좌·우로 나누어 모두 직선변을 衣에 연결시켰고 領은 衣身에서 폭을 줄이고 남은 부분을 사용하여, 저고리처럼 쉼과 깃이 덧붙여졌다. 이 深衣의 衣 마름질은 Fig. 4와 같으며 소요분량은 指尺으로 2尺 2寸의 폭에 길이가 24尺 2寸이며 약 484 cm가 된다.

이상은 중국의 복제인 深衣를 저고리와 유사한 형태로 이해하여 제도한 것이며, 이같은 현상은 조선말기의 초상화에 보이는 심의가 저고리 제도와 혼용된 모습과 「土儀」²⁵⁾의 端袞前圖와 「四禮便覽」²⁶⁾의 袞衣新制前圖에서도 볼 수 있다.

III-2. 바느질법

조선시대 저고리 유물에 대한 연구에서 시접분량과 솔기의 처리 방향은 보고되고 있다. 그중 특이한 것은 진동솔의 방향이 길쪽으로서²⁷⁾ 바느질이 곱게 될수 있는 오늘날의 가름솔에 비해 특이한 솔기 처리이며, 또한 조선중기에 어깨솔이 없는 것이다²⁸⁾. 그러나 이런 유물연구에서는 바느질 과정을 고찰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으며, 본 바느질법에서는 「조선재봉전서」에 기록된 저고리 바느질 순서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은 「조선재봉전서」의 저고리 짓는 법이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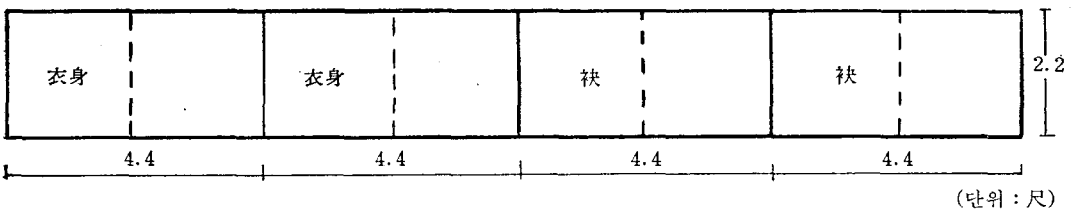


Fig. 3. 文公家禮의 深衣 마름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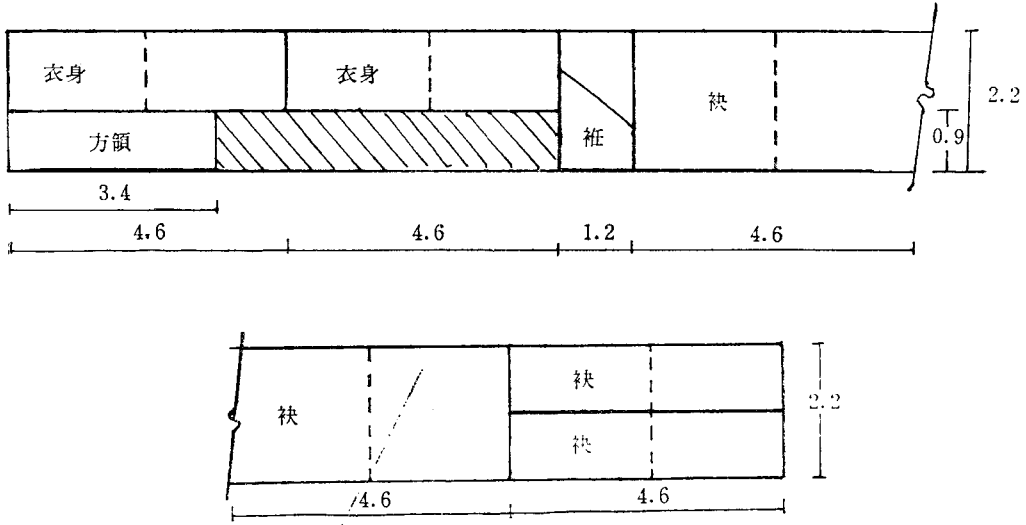


Fig. 4. 士儀의 深衣 마름질

8. 어깨솔을 호아서 뒤로 찍고
9. 등솔을 호아 량엽으로 가르고
10. 배래를 호아서 뒤로 찍거 인도를 치고
11. 량엽섬을 달여 안섬은 길쪽으로 찍고 것섬은 옆쪽으로 찍고
12. 등솔을 호아 고대서 내리 찍거논코
13. 깃을 달되……
14. 안을 뒤집어 잘 만져서 썬 안이 조음 적게하고
:
19. 안소매를 썬서 부리를 마치 안배래와 거쪽배래 솔을 꼭 마쳐 앞치호아적거서 솔쪽으로 접어놓코
20. 깃터진대로 손을 녀코 한손은 겹쳐 잇는 소매를 잡아 안으로 뒤집어서 부리를 접코
21. 도련을 찍거 인도를 치고 섬도 모양있게 인도친 후에
22. 고대를 막고

여기에서 9와 12는 모두 등솔로 중복 기록되고 있으나 백이겹저고리 깃는 법에서 그 순서가 등솔, 등솔…이며, 9항의 시접처리가 가름솔인 것으로 보아 9의 등솔은 등솔의 오자인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재봉전서」의 저고리 바느질법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느질의 순서는 어깨-진동-배래-깃-등솔-깃 달기의 순이다.

둘째, 겹옷으로 만들때 안·겹감을 각각 하나의 홉옷으로 만든후, 안감을 겹감에 끼워넣어 도련을 박고, 소매를 빼어 부리를 마주놓고 박아 완성시킨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의 문헌^{30~32)}에는 안·겹감을 각각 어깨-등솔-깃-진동의 순서로 바느질하며, 안·겹감을 평면상으로 겹쳐 놓은 상태에서 부리, 도련을 박고, 다시 이를 네쪽으로 만들어 배래와 겨드랑미 솔기를 박아 고대로 뒤집어 완성한다. 겹옷이 홉옷에서 발전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조선재봉전서」의 바느질법이 타당성이 있으며, 오늘날에도 권계순³³⁾은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어 겹옷제작시 평면상으로 전개하는 구성법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변화된 것 같다.

또한 한복바지의 제작 과정은 「조선재봉전서」의 저고리 겹옷 제작과 유사하며, 金相口³⁴⁾은 이 한복바지의 제작 원리를 피비우스 고리와 클라인 원통의 공간 개념으로 그 입체원리를 연결시켰다.

2. 深衣의 衣 바느질법

深衣의 바느질은 文公家禮에 의거하면³⁵⁾ “……길이는 4자 4치이며 이를 가운데를 접어 2자 2치로 한다 아래에 1치정도 남겨 허리 봉합과 양겨드랑이의 시접으로 하면 길이 2자 1치로서 衣의 길이로 삼는다. 폭은 너비 2자 2치가 4폭으로 8자 8치이다. 등솔 봉합과 깃가의 꺾을 것 각 1치와 양겨드랑이의 여분 전후 각 3치정도 제하면 들레는 약 7자 2치로서 衣의 너비로 삼는다.

소매는 윗 옷의 좌우 양겨드랑이의 여분에 연결하고 양겨드랑이의 여분에서 소매까지 모두 1치가량 꺾어 함께 박으면 본 너비는 윗옷 길이 2자 2치와 같다. 겹차동글게 삭감하여 부리에 이르면 즉 직경이 1자 2치이

다. 양겨드랑이의 여분 3치를 2자 2치 폭의 소매에 이으면 즉 2자 5치가 된다. 윗옷과 소매가 연결되는 곳의 봉합 및 부리의 꺾음 각 1치정도 안으로 넣으면 즉 2자 2치가 된다.

방령(方領)…윗옷의 양어깨위를 각 3치씩 잘라 이를 접어 바로 양깃(襟)위에 꿰매면 좌우가 서로 만나서 저절로 네모(方)을 이룬다. 소위 깃(領)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바느질의 특징은 어깨솔이 없으며, 진동솔이 소매쪽으로 들어가 있고, 領은 衣에서 만들어지며 다른 布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바느질 순서는 (어깨)-등솔-진동솔-배래-소매부리의 순이다.

따라서 深衣의 바느질은 「조선재봉전서」와 비교해 볼 때, 등솔이 먼저 박혀 오늘날의 순서와 같다. 오늘날 등솔을 진동솔보다 먼저 박는 것은 좌우의 길을 함께 연결하여 마름질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한편 솔기의 처리방향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시접분은 대개 1寸이며, 「土儀」³⁶⁾에서는 半寸도 禮에 벗어나지 않는다 하여 시접분이 줄어들었다.

IV. 저고리 구성의 공간이해

인체에 입혀진 의복은 인간과 가장 밀착되어 있는 것이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체에 적합한 기능적인 의복이 오늘날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양의복에서 그 기능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며, 동양의복은 寬衣로서 인체와 의복간에 여유있는 공간이 있어 이 공간을 통하여 신축성을 얻을 수 있다.

즉 동양의 사상은 눈에 보이는 實과 보이지 않는 虛를 같은 가치로 여기며, 이 陽의 형태보다 오히려 陰의 인 것으로 여겨지는 비어있는 공간이 신축성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老子는 「道德經」³⁷⁾에 “진흙을 형성하여 그릇을 만들면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유용성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사물의 존재는 유익성이 있고 無는 실용성이 있다” 하여 오히려 공간이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유용한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저고리의 평면구성은 정확한 신체계측에 의해 제작되지 아니한 여유량이 많은 느슨한 형태로서 피복용적이 풍부하여 동작에 도움을 주게 된다. 서양의복의 입체구성에 비해 저고리는 평면적 구성이므로 인체에 입혀질 때 좌우에 상당한 공간의 여유가 생기게 되며, 이런 공간의 잠재적 다양성을 통하여 의복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게 된다. 즉 매스(mass)는 공간을 위한 것이라는 동양의 사상을 이 저고리의 평면구성에

서 볼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深衣의 衣와 저고리가 유사한 구성이라는 전제아래 이 관련성 속에서 저고리 구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얻어진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고리라는 말이 최초로 보이는 문헌 기록은 明 永樂年間(永樂 6년 1408년경)에 성립된 「朝鮮館譯語」의 拈谷立이며 그 추정음은 tɕie-ku-li, tɕiə-구리-이다.

둘째, 저고리의 마름질 원형이나 본의 사용여부는 불확실하며 의복의 치수를 재어 마름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마름질에는 尺 이외에 深衣와 마찬가지로 布幅이 기준이 되어, 길의 앞·뒤폭과 소매길이는 布幅에 준했다.

네째, 저고리 마름질은 深衣와 마찬가지로 길의 좌·우는 분리되나 전·후는 연결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布幅이 다양해지자 등솔은 접어 박아 주었으며 「조선재봉전서」에는 길이 좌·우로 분리된 형과 전·후·좌·우가 연결된 형이 보인다. 또한 어깨솔은 조선후기에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深衣의 바느질 과정은 등솔-진동-배래-소매아귀의 순서인데 비해 「조선재봉전서」에는 어깨-진동-설-등솔-깃의 순서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의 문헌에는 深衣와 같이 등솔을 먼저 바느질 한다.

여섯째, 겹저고리를 만드는 경우 「조선재봉전서」에는 안·겉감을 각각 하나의 홑옷으로 만든후, 안감을 겹감안에 넣어 도련을 박고, 소매를 빼어 부리를 박아 완성시켰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대개의 문헌은 오늘날과 같은 구성법이며, 한복바지의 제작에서는 前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일곱째, 조선시대의 深衣制는 文公家禮에 의거하였으나 「土儀」(1870年)를 비롯하여 조선말기의 심의에서는 저고리와 유사한 형태로 우리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여덟째, 저고리의 평면구성은 여유있는 공간의 잠재적 다양성에 의하여 신축성 있는 의복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는 눈에 보이는 陽의 형태보다 陰의 인 것으로 여겨지는 빈 공간을 실용성 있다고 본 동양적 사고와 연관이 있다.

인 용 문 헌

- 1) 杉本正年, 東洋服裝史論巧 古代編, 文化出版局, 247, (1979).
- 2) 世宗實錄, 世宗 2年 9月戊寅, 紅段子赤古里.
- 3) 姜信沆, 「朝鮮館譯語」新釋, 대동문화연구, 8, 89, (1971).
- 4) 惠慶宮洪氏, 閑中錄
- 5) 四禮便覽, 卷之三, 喪, 袍襖俗稱(赤古里)
- 6) 李潢驥顯, 六禮修略, 卷之二, 襖子上體所衣俗稱赤古里(1932).
- 7) 李京子, 韓國服飾史論, 一志社, 132, (1983)에는 短赤古리로 보며, 高福男, 韓國服飾用語의 變遷史의 研究, 민속학회지, 14, 21, (1981)에는 장옷의 형태로 본다.
- 8) 金仁淑, 深衣考,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 청구논문, 8~17, (1974).
- 9) 三·一神話, 治化紀, 又命匪西岬神母主紡績曰衣禦寒暑表貴賤作女工乃縫用施於民.
- 10) 閨閣叢書, 卷之二.
- 11) 惠慶宮洪氏, op. cit.
- 12) 古今圖書集成, 禮儀典第三百三十六卷, 衣服部彙考二, ……用指尺 中指中節爲寸 司馬溫公曰凡尺寸皆當用周尺.
- 13) 朴興秀, 李朝尺度에 關한 研究, 대동문화연구, 4, 25, (1984).
- 14) 李潢, 星湖僊說, 今之布帛…廣不過一尺四五寸.
- 15) 朴興秀, 세종조 문화연구(I), 세종조의 과학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博英社, 346, (1982).
- 16) 장인우, 조선초기 저고리의 복원적 고찰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73, (1985).
- 17) 장인우, 조선중기 저고리의 복원적 고찰, 충북대학교 박물관 조사보고, 제20책, 69~105, (1987).
- 18) 金淑堂, 조선제봉전서, 京城 浩文社, 17~19, (1925).
- 19) 金分玉, 韓服生活, (1963).
- 20) 金粉七, 韓服構成學, 敎文社, (1983).
- 21) 朴京子·林純映, 韓國衣裳構成, 修學社, (1983).
- 22) 權桂淳, 우리옷 變遷과 裁縫, 修學社, (1977).
- 23) 古今圖書集成, 用布二幅長四尺四寸中屈之爲二尺二寸…袂袖也用布二幅四尺四寸各中屈之爲二尺二寸…方領 兩襟相掩袂在腋下則兩領之會自方.
- 24) 許傳, 士儀, 10, (1870).
- 25) Ibid.
- 26) 四禮便覽, 卷之四, 喪圖.
- 27) 장인우, 조선초기 저고리의 복원적 고찰, 72~74, (1985).
- 28) 장인우, 조선중기 저고리의 복원적 고찰, 105, (1987).
- 29) 金淑堂, op. cit., 20~23.
- 30) 金分玉, op. cit.
- 31) 朴京子·林純映,
- 32) 金粉七, op. cit.
- 33) 權桂淳, op. cit.
- 34) 金相日, 한철학, 展望社, 166, (1983).
- 35) 古今圖書集成, 長四尺四寸中屈之爲二尺二寸下除寸餘爲腫縫及兩腋之餘縫長二尺一寸所以爲衣之長幅廣二尺二寸四幅廣八尺八寸除負繩之縫與領旁之屈積各寸及兩腋之餘前後各三寸許約圍七尺二寸所以爲衣之廣也…袂袖…屬於衣之左右兩腋之餘自兩腋之餘及袂皆反屈寸餘而合縫之其本之廣如衣之長二尺二寸而漸圓殺之以至袂口則其徑一尺二寸兩腋之餘三寸續以二尺二寸幅之袖則二尺有五寸也內除衣袂續處合縫及袂口反屈各寸許則二尺二寸也…方領…衣之兩肩上各裁入三寸而反摺之就綴於兩襟上左右相會其形自方非別有所謂領也.
- 36) 許傳, op. cit.
- 37) 老子, 道德經, 十一章.